

# “졸업식 대목 옛말...재고 넘쳐 폐기해야 할 판”

**리포** 원예농협 화훼공판장 가보니

### 장미 한 단 가격 연초대비 절반 이하 폭락 코로나에 유가상승 겹쳐 화훼업계 벼랑끝

“연초에 일시적으로 꽃값이 급등했었는데, 지금은 수요가 너무 적은 탓인지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이제는 꽃이 너무 많이 남아서 문제예요.”

광주원예농협화훼공판장에서 꽃을 도매 판매하는 백 모씨(50대·여)는 이같이 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18일 오전 9시에 찾은 광주원예농협화훼공판장.

백씨는 연초 도매가 1만5,000원에서 2만원까지 올랐던 장미 한 단을 현재는 절반에 가까운 7,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백씨는 “지난해 코로나19에 유가 상승까지 화훼 업계 전체가 많이 힘들었다”며 “문을 닫은 농가도 있고 공급량을 줄여 연

초에 화훼가가 급격히 올랐다”고 말했다.

백씨는 화훼 가격이 급락한 원인을 판매가 부진해 재고가 쌓인 탓으로 분석했다. 백씨는 “현재는 가격이 많이 안정이 됐다”며 “도매가가 두 배 가까이 올랐을 때는 사가는 사람이 없어 매출이 안나와 정말 힘들었다”고 말했다. 백씨는 “졸업식 대목을 앞두고 경매가가 내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수요가 없어서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보통 1~2월은 졸업식 대목이라 오전 6시부터 꽃집 사장님들이 대량으로 구매해가고, 오전 9~10시 쯤에는 거의 다 팔려 매대가 텅텅 비어 있어야 하는데 꽃이 넘쳐있다”며 “코로나 19 영향으로 졸업식, 결혼식 등 대면 행사



18일 오전 광주시 서구 풍암동 광주원예농협화훼공판장을 찾은 한 손님이 재고를 처분하지 못해 며칠째 진열된 꽃들로 가득한 매대를 둘러보고 있다.

가 없으니 여전히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날 도매 시장을 찾은 장 모씨(32·여)는 “연초에는 도매가가 많이 올라 5송이

꽃다발을 3만원 정도에 판매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가격이 급격히 올랐다가 내리니 손님들은 오를 가격만 채감한다”며

“꽃이 비싸다는 인식이 한 번 생기니까 손님 발길이 뜸 끊겼다”고 털어놨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화훼, 생산

및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화훼(절화류) 재배면적은 전년비 12.9% 감소했으며, 지난해 12월 한파로 인한 일시적 생육 지연 영향으로 연초 일시적으로 화훼가격이 급등했다. 연초 절화와 장미가격은 평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해 최대 1만 3,373원, 2만407원 수준까지 상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졸업식이 12월 말부터 1월 초로 당겨져 실시됐으며, 올해도 비대면 졸업식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대면 졸업식 소폭 증가로 일시적 화훼 수요 증가를 대응하지 못해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했다.

aT화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3일 광주원예농협에서 경매된 장미 한 단 평균가는 1만6,620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난 5일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17일 장미 한 단 평균가는 4,596원으로 72.3% 감소했다.

신가동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이 모씨(48·여)는 “오늘 근처 고등학교 대면 졸업식이 있었다. 학교 입구에서 꽃다발을 팔기 위해 나갔는데, 학생 외에는 들어갈 수 없어 작은 꽃다발 5개 정도 밖에 못팔았다”며 “2월 졸업 시즌 막바지를 노리고 있지만 대면 졸업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혜린 기자

## 나주관광개발-엔픽플, ‘골드레이크 아마추어 대회’ 협약

중흥그룹 계열사 나주관광개발(대표이사 임대형)은 지난 17일 나주 골드레이크컨트리클럽에서 ㈜엔픽플(대표이사 위대호)과 ‘2022년 엔픽플배 골드레이크 아마추어 대회’ 메인후원사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골드레이크컨트리클럽과 ㈜엔픽플은 상호 협력관계로 성공적인 대회 유지를 위해 힘써 나갈 것을 약속

했다.

‘골드레이크 아마추어 대회’는 올해로 10년차를 맞이한 전남지역 최고의 골파추어 골프 대회로, 매년 2,000여 명이 참석해 지금까지 2만여 명이 넘는 아마추어 골퍼들이 참가해 왔다.

이번 대회에는 ㈜엔픽플을 비롯해 불빅, SR30, ㈜미라티앤비 등이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그동안 롯데카드, 광

주은행 등 유명 기업들이 메인후원사로 참여한 바 있다.

대회 예선은 오는 3월 말을 시작으로, 매달 마지막 주에 걸쳐 총 9번의 시합이 실시된다. 이를 통해 결선에 진출하는 인원 18명을 선발한다. 결선 진출자는 신페리오 방식을 통해 순위 경쟁에 나서게 되며, 우승자에게는 중준형 차량이 제공된다. /이연수 기자

## 광주·전남 최초 창고형 매장 문 연다

### 롯데마트 ‘맥스’ 상무점...21일 리뉴얼 오픈

광주·전남지역에 최초로 창고형 할인점 ‘롯데마트 맥스(Maxx)’가 오는 21일 문을 연다.

18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새로운 창고형 할인점 ‘맥스’를 리뉴얼 오픈하며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선다.

롯데마트 맥스 상무점은 기존 롯데마트 상무점을 재단장해 오는 21일 리뉴얼 오픈한다. 이에 앞서 20일 오후 12시부터 약 1시간 동안의 프리 오픈할 예정이다.

롯데마트 맥스 상무점은 지상 6층(주차장 포함), 영업면적 약 1만3,100㎡(3,969평) 규모이다.

지상 1층부터 2층은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홈패션 등을, 지상 3층은 롯데마트와 인전매장 볼링병거를 비롯한 가전·리빙 브랜드를 골라보한 토탈리빙매장으로 구성했다.

롯데마트 맥스 상무점은 전형적인 창고형 매장에서 전문점을 강화해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윈스타프 쇼핑 창고형 할인점으로 구현했다.

필요한 상품을 집중 소비하는 최근 소비 트렌트에 맞춰 판매 품목수(SKU)를 3,000개 수준으로 운영한다. ‘소품종 대량판매’로 상품의 압도적인 신선함과 가

성비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생수, 우유 등 가정에서 매일 소비하는 대표 생필품은 자체 브랜드 상품과 해외 소싱 등을 통해 오직 맥스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단독 상품을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가전, 리빙, 와인, 베이커리 등 매장의 전문성을 강화해 차별화한다. 단순히 제품을 진열하고 가성비로만 승부하는 전형적인 창고형 할인점이 아닌, 전국 최초 토탈리빙매장과 가전·리빙 체험형 쇼룸 등 다양한 전문점을 운영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서울 잠실 제타플렉스에서 첫 선을 보이고 오픈 3일만에 단일 매장 매출 6억원을 달성한 롯데마트 와인전문매장 ‘보틀뱅크(Bottle Bunker)’를 오는 4월 지역 최초로 추가 오픈한다. /김혜린 기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ICT 쇼핑 플랫폼

골프장에서, 생활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제품을 큐빙에서 최저가로 만나보세요.

엑스퍼온이 만든 Vending Machine

골프용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 구매가 가능하고 43인치 디스플레이 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 신개념 자판기입니다.

www.xperon.co.kr 문의 TEL. 02-2070-5009

## 광주 첨단 2지구 ‘더 센텀하이테크’ 분양 돌입

### 기업 몰리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지·환경·교통 인프라 주목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속 쾌적한 업무 환경을 선호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광주 지식산업센터 ‘더 센텀하이테크’가 분양에 돌입해 관심을 받고 있다.

광주 첨단2지구에 위치한 더 센텀하이테크는 지하 2층-지상 20층, 건축면적 6,378.17㎡, 연면적 8만1,072.40㎡의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477실, 기숙사 200실, 근린생활시설 88실 등 765호 실 규모로 조성된다.

일반 지식산업센터 대비 더 높은 층고인 최대 5.4m(2층-7층)로 설계돼 공간감이 뛰어나며 서비스 면적이 별도로 제공되기에 한층 더 여유로운 공간 확보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시스템 냉·난방기가 산업시설



센텀하이테크 투시도

과 기숙사에 한해 무상 제공되고 있으며 기숙사의 경우 더 샵 클라우드 플랫폼 바탕 아래 카카오톡, SKT, 삼성전자, LG전자 플랫폼과 연동돼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입주 기업 직원들을 위한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졌다. 단지 내 금융시설 입

점이 예정 중에 있으며 대형 화물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물류 상하차 등이 용이하다.

현재 더 센텀하이테크 견본주택은 서광주역 부근에 방문 예약제로 운영중에 있으며 지난해 12월 착공을 시작했다. /이연수 기자

## 김학도 증진공 이사장, 생산현장 방문

### “신산업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 중점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동부지부는 18일 김학도 증진공 이사장이 순천시에 소재한 친환경 퍼스널 모빌리티 생산기업인 ㈜마이벨로(대표이사 최기호)를 방문해 연구개발 및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정부의 그린 뉴딜정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동부지역 전기자전거 제조기업의 대표와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마이벨로는 전기자전거의 핵심인 BLDC모터와 리튬배터리 관련 다수의 특허를 보유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마이벨로는 연간 8만대 규모의 전기자전거, 전동휠체어 생산라인을 갖추고, 유럽과 북미지역 판로를 확대해 지난해 수출 2,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또한 지역 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원의 절반 이상을 고려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을 고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지난해 국가균형발전대상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에 증진공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마이벨로의 신산업 분야 기술개발과 상용화, 수출 확대를 위해 투융자지원 금융자금, 신시장 진출자금·수출비우치를 지원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증진공은 이산화탄소·미세먼지 절감 등에 기여하는 친환경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제조 및 서비스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